



[경제종합] 서울서 찾기 힘든 집값 4억이하 기준에 안심전환대출 외면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67.85 (+12.19)	코스닥	760.35 (+8.44)
금리 (미국 3년)	3.823 (+0.064)	환율 (원-달러)	1389.50 (-4.10) (20일)

## 노다지 '폐배터리' 선점하라... 기업들 경쟁력 확보 속도



배춧값 급등으로 인해 포장 김치의 수요가 늘어나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포장김치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金추' 된 배추, 김치대란 예고

배추·무 등 가격 1년새 두배 올라 온라인몰 포장김치 품질 사태도 CJ·대상, 김치 평균값 10% 인상

두 올해들어 두번째 가격인상이다. CJ 제일제당과 대상은 각각 지난 2월과 3월 김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급등한 원재료 가격 탓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김치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탓이다.

그럼에도 포장김치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포장김치 품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상은 지난달 중순부터 자사 온라인몰 '정원e샵' 내 증가집 김치 상당수 품목을 판매 중단했다. 열무김치, 맛김치, 깍두기를 제외한 대부분 김치가 일시 품절 상태다. 업계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포장김치 사재기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CJ더마켓에 포기김치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이달 13일 현재 평균 1만955원, 최고가는 1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약 5600원, 최고가 8000원이었다.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9000원을 육박한다.

대형마트에 김치를 구매하러 온 주부 A(46)씨는 "김장김치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다. 배추도 속재료도 다 오른 상황이라 김치조차 마음놓고 먹지 못하게 됐다"며 "포장김치라도 구매하기 위해 일찍 마트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오전에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지, 주말 오후에는 김치 구매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고춧가루와 마늘 등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이 가격이 오르자 김치 담그기를 포기하고 사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포장김치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원재료 부담이 상당하고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CJ제일제당은 최근 포장김치 19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1% 가장 인상했다. 대상도 다음달부터 대표 상품 가격을 10% 가까이 올릴 예정이다. 양사 모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8834@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下>

전기차 배터리, 車원가 40% 차지 친환경차 성장따라 새먹거리 부상 2030년까지 연평균 30%성장 전망 폐배터리 순환분야 제도 미흡 한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의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은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민간업체들이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안전성과 성능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관련 제도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는 올해 16만대로 시작해 2025년 54만대, 2030년 414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폐배터리도 지난해 1000대에서 2030년 11만대로 10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연료 보급과 충전 여건이 부실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그야말로 폐배터리 시장은 친환경차 시장 성장만큼 미래 먹거리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만큼 폐배터리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1세대 전기차 재활용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전망이다.

다시 전기차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배터리 부품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상태가 안좋은 경우는 니켈이나 코발트 등 유가금속만 추출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 원료로 '재활용'한다.

다만 우리 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강국이지만 여전히 폐배터리 순환 분야에서는 관련 제도가 미흡해 기업들의 성장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를 폐차, 수리하는 과정에서 떼어낸 사용후배터리는 상태에 따라

문제는 전기차 폐차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보통 폐차업체의 경우 영세업체라는 점에서 배터리 등을 분리해 성능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다. 위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배터리를 전문성없이 관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재활용 시장만 성장하고 있을 뿐 재제조나 재사용은 아직 실증단계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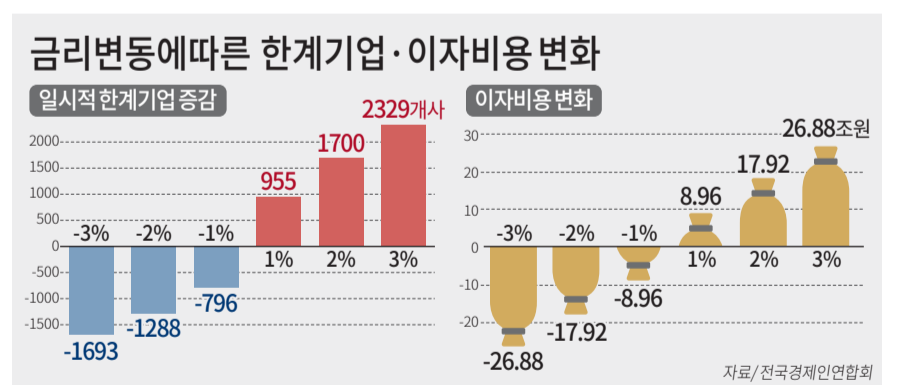
**메트로경제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오늘 14:00~17:00, 서울 을지로5길 페럼타워 페럼홀 <관련기사 L8>

## 고금리에 피 마르는 기업, 은행도 부실 우려

5대은행 기업대출잔액 687조 금리인상 땀 한계기업 늘어나 은행권 건전성 관리체계 필요

금리가 치솟으면서 돈을 빌린 기업은 물론 빌려준 은행도 부실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연장할 경우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87조4271억원으로 지난해 말(635조8879)과 비교해 51조5392억원(8%)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96조7491억원으로



지난해 말(82조4093억원)과 비교해 14조원 늘었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590조678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55조원가량 늘었다.

◆은행, 기업대출 증가  
기업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감소로 인한 수익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가 부진하고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충분히 가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는데 공격적으로 나선면이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UN총회서 10번째 연설... 김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도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조문 취소' 논란에 '왕실과 조물... 홀대 사실 아냐'

▲野,尹조문 불발 "외교참사"에 한덕수 "장례 미사가 공식 행사"  
▲뉴욕서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동결 원화자금 등 논의



▲한 총리, 김여사 영빈관 신축 지시 의혹에 "예산 그렇게 반영 안돼" /사진 뉴시스  
▲한-UAE, 12차 국방차관급 운영위 23일 개최... 국방협력 논의